

12/4/22

설교 제목: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의 삶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요한복음 15 장 9-27 절

(요 15:9)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요 15:10)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요 15:11)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 15:12)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요 15:13)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요 15:14)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요 15:15)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요 15:16)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절관주** 요 6:70

(요 15:17)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절관주** 요 15:12

(요 15:18)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요 15:19)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절관주** 1 요 4:5

(요 15:20)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절관주** 요 13:16

(요 15:21)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요 15:22)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 (요 15:23)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 (요 15:24)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절관주** 시 35:19
- (요 15:25)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절관주** 시 69:4
- (요 15:26)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 (요 15:27)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예수님은 앞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며 제자들을 향해 당신 안에 거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 본문에서 어떻게 하면 당신 안에 거할 수 있는지와 당신 안에 거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복과 세상으로부터 받게 될 미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 예수님은 당신 안에, 당신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하십니다.
- (요 15:9)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 (요 15:10)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 (요 15:11)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이어 바로 당신의 계명이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 (요 15:12)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계명은 당신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는 곧 당신이 이루실 속죄 사업을 의미합니다. 이밤이 지나면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을 대신해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당신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죽기까지 사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기꺼이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 공로로 우리는 구속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에 대해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강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지로 이루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일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인간이 구원 받을 다른 어떤 방법이 없다는 사실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을 수 밖에 없는 인간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계명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계명의 근본 사상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새계명이라고 하시며 주신 계명은 실상 새계명이 아닙니다.

구약의 계명이나 새계명이나 다같이 그 근본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본장 첫 부분 (1-11 절)에서 하나님과의 연합 곧 하나님 사랑을, 뒷 부분 (12-17 절)에서 이웃 사랑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의도로 계명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계명을 지키므로써 자신들이 얼마나 훌륭한 종교인이지를 나타내보여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아버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당신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것이고, 당신의 기쁨 곧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 얻게 된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 충만한 기쁨을 가지고 주님의 제자로 세상을 이겨내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불평 불만 의심 등을 지워버리고, 인내로 고난과 환란을 이겨내며, 담대하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하여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우리를 위해 어떤 큰 사랑으로 희생을 하실지를 말씀하십니다.

(요 15:13)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요 15:14)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은 당신의 명대로 계명에 순종하는 자를 당신의 친구로 삼으시고 그 친구를 위하여 큰 사랑을 베푸사 목숨까지 버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사랑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친구된 자들에게 영원 전부터 깊이 감취었던 구속에 관한 진리를 전하여 주셨습니다.

(요 15:15)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구속의 진리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깊이 감취었던 오묘한 진리였습니다.

(벧전 1:9)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벧전 1:10)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벧전 1:11)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벧전 1:12)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 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그들을 택하신 내막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서로 사랑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십니다.

(요 15:16)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요 15:17)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제자로 세움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밝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되고 따라서 영적인 열매를 맺게 되며 기도의 응답도 이루어진다고 하십니다.

인간이 주님과 연합되는 것이 오직 주님의 택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주님의 택하심에는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당신을 알기도 전 우리를 먼저 택하셨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개입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그냥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인간은 비로소 서로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랑을 근거해서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지껏 제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받을 사랑에 대해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제 그들이 세상으로부터 받을 미움에 대해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건네십니다.

첫째, 그 미움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예수님이 받으시는 미움에 동참하는 것은 오히려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요 15:18)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둘째, 미움을 받는 것은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증표라는 것입니다.

(요 15:19)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째, 주인인 예수님이 핍박을 받았으니 종된 너희가 그것을 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 15:20)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믿는 자들이 핍박을 받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네째, 핍박자들의 악행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무서운 죄이므로 그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 15:21)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요 15:22)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무지가 면책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증거하셨음에도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들은 차라리 당신을 보지 못하는 편이 좋았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다섯째, 믿는 자들을 미워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미워하는 큰 죄라고 하십니다.

(요 15:23)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요 15:24)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속은 것입니다.

1. 그들은 예수님이 행한,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이적들을 보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았습시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완전히 계시합니다.

여섯째, 그것은 율법에 기록된대로 되어지는 것이니 하나님의 작정하심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줄 믿고 안심하라고 하십니다.

(요 15:25)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시편 69 편 말씀을 '율법에 기록된 바'라고 하시며 인용하십니다.

당시는 시편을 율법 아래 넣어 말하였습니다.

(시 69:1)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시 69:2)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시 69:3)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시 69:4)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 주게 되었나이다

일곱째, 이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할지라도 그들은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 굳건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요 15:27)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우리는 예수님과 처음부터 함께 있었던 이들을 가리켜 사도라 합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세상의 미움과 핍박을 두려워했으나 오순절에 성령의 권능을 받은 후부터는 예수님이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행 1: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명을 따라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마땅한 삶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사랑의 극치는 전도입니다.

죽을 수 밖에 없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전도하며 삽시다!

아직 때가 아니라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십시오.

능력이 없어 자신이 없다고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도우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